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시청 민원실은 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리고 있다. 10일 오전 9시 30분, 비교적 이른 시각임에도 민원실은 여권 신청자들로 만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너도나도 해외로... 해외로...

여행수지 적자 사상 최대 속 광주 휴가철 여권발급 2배 급증

휴가철과 여름 방학을 앞두고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이 평상시보다 50% 이상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여행사들도 비수기에 비해 해외 여행 예약 신청자가 두배 이상 늘었고, 7, 8월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같은 해외여행 러시 속에 여행수지 적자도 눈덩이 처럼 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여행수지 적자는 6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상태이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 연말 여행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할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원실 관계자들은 추가 근무는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여권 발급에 매달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여권 발급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650건으로 평상시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광주시에 접수된 여권 발급 신청은 지난 3~5월에는 하루 평균 400여건 내외였으나 6월 들어 하루 평균 650건으로 늘었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5월에는 여권 발급 신청이 하루 평균 300여건이었지만 6월 들어 500여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여권 발급 신청이 10% 정도 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방학시기인 7~8월에는 여권 발급 신청 건수가 각각 800~900건, 600~700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접수창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주시청 민원실은 요즘 오전 일찍부터 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정인주(39·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시청 민원실을 왔다가 대기자가 많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어 아예 업무시간 전인 오전 9시에 민원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 발급이 증가한 것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가족 단위 해외 여행과 청소년들의 여학연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와 관련 신 감독의 논문지도 교수로 돼 있는 크리스틴 메링 교수는 9

신감독 선임 사실상 철회

비엔날레재단, '가짜학위' 의혹 시인 신감독 13일 귀국 공식임장 밝힐듯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가짜 학위'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감독 선임 철회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신 감독의 예일대 박사학위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재단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자체 조사 결과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가짜 학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갑수 재단 이사장은 1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짜학위 의혹과 관련) 여러 부분에 의심가는 대목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내정

자 신분이기 때문에 선임을 취소하면 된다"며 신씨에 대한 감독직 철회를 내비쳤다. 한 이사장은 "박사학위가 감독의 전제조건은 아니나,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성 측면에서 감독직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단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신 감독이 재단에 제출한 박사학위 증명서류는 발행 주체가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는 등 여러 면에서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감독의 논문지도 교수로 돼 있는 크리스틴 메링 교수는 9

일 본보가 보낸 이메일 회신을 통해 "신정아를 모르고 논문을 지도하지도 않았다(I do not know Jeong Ah Shin and have not advised this dissertation)"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신 감독은 같은 날 밤 기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위 취득은 사실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 지 모르지만, 박사학위 문제는 동국대에서 또 한번 검증하고 있으니 동국대의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오는 15일 귀국 예정이었던 신 감독은 일정을 앞당겨 13일 귀국, 공식임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흐 수채화' 한국에 있다

미공개 작품 '마차와...' 그림값 1천억 웃돌 듯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수채화 한 점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흐의 수채화(텔레라) 중 소재가 파악된 세계 최초의 그림으로, 진품으로 확인될 경우 세계 미술사를 다시 쓰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고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한 달 전에 그린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1890년 6월)을 국내 소장자 서병수(59)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 그림은 그가 말년을 보낸 프랑스 파리 근처의 오베르슈르 우아즈 시절에 제작된 것이다. 고흐의 수채화가 거의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림이 진품으로 판명될 경우 그림값은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고흐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의사 가세의 초상'으로 1990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8천 252만달러(759억원)에 팔렸다. 서씨가 공개한 수채화 '마차와...'는 아침과 저녁, 정병할 때와 흐릴 때,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오묘하게 변



서병수씨가 공개한 고흐의 수채화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 (중앙일보 제공)

하는 색깔과 요철(凹凸)의 변화를 형성한 것으로, 천재의 번뜩이는 솜씨와 함께 광기와 고독성마저도 느낄 수 있는 걸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경제성장률 전망 4.5%로 상향

韓銀, 콜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높아

질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한은은 10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2007년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4.4%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4.4%로 당초 예측치(4.0%)를 크게 웃돈 게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연형뉴스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ur.ac.kr

세계로 뻗어나는 12년
진남과학대학
www.jn.ac.kr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북북아아였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결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 비타민 A, C, E의 보급
- 복합미네랄 인산·수용성 베타카로틴
- 레시틴, 소금기
- 뉴욕, 인트라와, 관해, 이명증
- 안과, 피부병, 동맥 질환, 예초정착
- 기미, 주근깨와 눈화, 안질환을
- 비출혈 예방
- 알코올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신장질환, 수주치질, 수주염, 수주염, 수주염
-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cicfarm.co.kr

고객콜센터 112-1121 부대 080-022-2200